

박남희 <기술학이 아닌 해석학으로서의 의학: 가다머의 의철학>

11장 치료자로서의 의사

◆1교시 : 데미안 허스트와 치료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들



제가 오늘은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색다른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데미안 허스트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잘 아세요? 아마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실 거예요. 그 사람 작품도 보셨어요? 혹시나 싶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업 시간 전에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 봤거든요.

이 사람 작품이에요. 제목이 뭐냐 하면 새로운 종교라고 해서 약통하고 신약 개발한 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 거거든요. 이게 시리즈예요. 가까이서 보이세요? 이걸 천지창조에 해당하겠지요. 보게 되면.. 만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저도 잘 안보이니까.. 보시게 되면 약을 통해서.. 이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보시면 느낌이 오세요? 재미있는 거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전시됐던 작품들인데 이걸 뭐라고 그랬냐하면, 신약들이 개발되어서 그 약을 선전할 때 절대화를 시키죠. 이 약을 먹으면 완전히 뭐든지 다 낳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세계지도가 있어요.



세계지도에 색깔을 나타내는 거 하고 이게 사실은 약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핵폭탄 대두를 갖고 있는 열세나라를 표시한 건데 그중 한 나라 이스라엘은 예수를 지칭하고 나머지 열두 나라는 열두 제자를 상징하는 걸로 세계지도를 그렸고..



이건 뭐지요? 사람의 뇌지요. 계속 주사바늘이 꽂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주사바늘을 꽂는지 그걸 한번 꽂아보면 고슴도치가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건 약의 성분을 구획하는 색깔로 인해 삼위일체라는 걸 지칭했구요. 이건 제단이지요. 여러분 집의 식탁 위에는 뭐가 놓여 있으세요? 집의 식탁 위에.. 저희 집에도 놓여 있거든요. 약상자.. 비타민 종합비타민 칼슘제 오메가쓰리.. 또 뭐죠? 요즘 많이 먹는 거.. 뼈 구성할 때 뭐가 들어가는 거 하고 들어가지 않는 거 하고 구별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왔어요. 유한양행에도 나오고.. 뭐지요? 저도 가방 안에 갖고 왔는데.. 글루코사민.. 그것도 잘 먹지요. 그밖에도 여러 가지 약들이 식탁위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기의 건강이라는 종교의 제단이지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상징하고 있고..

여기에는 약들 하나하나에 열두 제자의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현대인들이 꼭 먹어야 하는 약들을.. 이걸 꼭 먹어야 돼.. 이걸 꼭 먹어야 돼.. 하는 것들에 열두 사도들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약병 약통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이걸 심장 수술하는 거죠? 다른 건 다 감추고 심장부분만 클로즈업해서.. 예수의 심장이 뭐예요. 붉은 포도주 그걸 상징하는 거 하고.. 이걸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상징하면서 여기다 피 흘리는 거.. 약 머큐롬.. 재밌어요.

이건 죽음에 대한 걸 상징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해골이 아니라 황금을 입혔어요. 그렇죠. 죽음에 황금을 입혀 황금 바가지가 됐는데 죽어가는 인간에게 약을 먹이고 치료하는 것이 이것이 혹시 황금을 입히는 게 아닌가.. 죽음에 대해 인간에게 죽음 자체를 직시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황금을) 입혀서 단순히 죽음을 회피하게 하는 거는 아닐까.. 이것이 저의 엉터리 해석입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약상자 우리도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집집마다 약상자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이 사람의 작품 하나하나가 이 상자 케이스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앞에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가 재밌어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보석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보석이 알고 보면 다 약이에요.. 약. 이게 바로 그 작품인데 사실은 보석 같죠?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파랗고 노랗고.. 이걸 보석 아니에요. 돌이에요. 이걸 약으로 되어있고 결국 나중에는 본연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목도되어지는.. 이런 걸로 연결되어 지는 거죠.

근데 사람의 죽음하고 나비의 죽음하고 대비시켜서.. 사람의 죽음은 참 이렇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걸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자꾸 피하고 싶어 해서 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그런 데로 빠져드는데 이 나비는 자기의 죽음자체를 직시하면서 필적이며 유명하죠. 애벌레에서 나비로 자기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요.

어쨌든 이것도 모두 열두 제자의 이름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큰 공간에 상어를 잠겨있게 하기도 하고 나비도 핀을 착착 꽃아 놓아서 그런 작품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궁극적인 것은 뭘까요? 이게 그 사람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현대의학과 약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한 걸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론



데미안 허스트는 옛날에 종교를 통해서 신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통해 죽음에 대한 회피를 했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종교를 잃어버린 대신에 현대 과학에 의존한 의학이라는 기술 테크닉을 통해서 존재와 죽음과 구원의 문제를 도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은 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약을 믿는다는 차이만 있지 두 영역은 똑같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 앞에 홀로 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정면으로 대결하지 못하고.. 뭐냐 하면 그 뒤편으로 숨어버리려고 하는 현대인의 불안 자신감 없음 이런 것들이 신에 의존하게도 하고 약에 의존하게도 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현대의 사람들이 과학의 시대에서 신을 믿는다는 게 가당하기나 한 건지.. 신을 믿는다고 영생을 하나 부활을 하나 그런 건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현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약을 통해서 똑같은 믿음의 형태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둘 사이에는 신이나 약이나 라는 양단간의 선택, 다른 형태의 믿음만 작동되고 있는 것이 다를 바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이 사람이 종교의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선 구원에 이르려고 하듯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종교는 약.. 의학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것이 과학적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 믿음이다.. 종교에 대한 믿음과 하나 다를 것 없는 믿음이란 거죠. 앞에 놓인 것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은 예수가 아니라 약이라는 보석을 박은 십자가에 대한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작품은 주로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간다는 것.. 격리된 어머니와 아이 이런 걸 통해서 단절감 고립감 외로움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오히려 실존적으로 강하게 자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반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죽음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가혹하고 불편한 죽음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비의 죽음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간다 라는 사실은 같은데 한 쪽은 그걸 회피함으로 인해서 그걸 연장하려고 하는 형태에서 인간들이 오히려 당혹감 불안감 가혹함 같은 걸 가질 수 있지만 때론 죽음도 아름다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뒤에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지요. 여기 재밌는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보았던 해골은 인간이 맞이할 죽음을 상징하고 나비는 갈망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사다리처럼 삶과 죽음사이에서 춤추는.. 그래서 가냘프지만 강인한 영혼을 지닌 존재로 나비를 상징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희망을 갖는 그런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성찬은 기독교에서 성찬의식 하잖아요? 그 성찬이 예수의 피와 살이기 보다는 요새 성찬은 뭐냐 하면 잘 먹는 거.. 옛날에 종교의식에서의 성찬은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하지만 여기에서 현대인들의 성찬은 약이다 라는 거죠.

약을 먹는다 라는 의미의 성찬이고 예수의 열두제자는 뭐냐 하면 각가지 고통을 죽이는.. 사람이 몸에 이상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서 열두 제자는 진통제로 부각되고요. 그 다음에 약이 배열된 배경은 약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치료하느냐 인데 그것은 성경의 텍스트라는 거죠. 그리고 성분의 그래프는 성삼위로 표현되고 신성한 예수의 심장은 가시편류관으로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약과 성경의 텍스트로 혼합되어있는 알약이 보석처럼 박힌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않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삶과 고통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봤던 가다머가 고통이란 것이 우리가 제거해야 할 배제해야 할 대상이나 아니면 함께 더불어 가야 될 것으로 인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안고 봤을 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이건 청담동에서 인터아트라는 데서 전시했어요. 얼마 전에 했어요. 7월31일에 끝났으니까.. 좀 아쉽죠?)

이 사람이 왜 이런 작품들을.. 이런데 목도하게 됐나.. 이 사람의 삶의 배경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서도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를 회복시키고 나올 수 있는데 꼭 약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예술로 끌어 들여서 예술로도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고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라는 걸 상대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이나 살아온 이야기를 보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있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시체공시소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공시소가 어딘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병원 캐비닛 안에 있는 내용물들과 의료도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에게서의 어쩔 수 없는 죽음의 물리적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죽음에 매료되지 않은 채로 죽음을 응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이여야 하지 않을까.. 꼭 의학이라는 것이 과학에 의존해서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이 사람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레스토랑을 열기도 했는데 그 이름이 재밌어요. 약국이에요. 영국 노팅힐이라는 곳에 약국이라는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약국이라고 하면 건강이나 치료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회사도 차렸어요. 사이언스사라는 회사도 차렸는데 거기에서는 바로 이런 의학 관계에 반하는 것들을 팔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오늘의 사회가 과학이라는 또 다른 신화에 얼마나 매료되어져서 살고 있는 지 그 과학 시대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어서 그걸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 사람 생애가 좀 독특하죠? 어쨌든 한번 놓치고 교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재밌어서.. 혹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이따쉬는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세요.

◆2교시 : 가다머의 자연관에 의한 치료이론

▲실재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철학에서 실재에 대한 개념에 들어갈 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직선.. 모든 것을 발전적으로 보는 타입이 있는가 하면, 사회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타입이 있구요. 또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나사모양으로 가려는 타입이 있죠.

만약 우리가 어떤 병에 대한 이해나 원인을 찾아가려고 할 때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사람의 이해가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도모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행동의 원인을 분석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걸 사회구조주의적인 입장이죠? 구조주의가 뭐냐 하면 기본으로 무언가가 있고 그 위에서 이렇게 형성해나가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기저에 원인이 있고 그 위에 구조물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터를 의식의 세계로 놓고 밑 부분을 무의식의 세계로 놓던..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현상을 드러낼 때는 그것의 원인으로 심층분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심층분석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로 놓으면서 의식은 무의식이 끊임없이 위로 표출되어져 의식의 세계로 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원인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되죠.

▲무의식과 치료

여기에서 프로이트가 우리의 치료의 문제에 있어 공헌한 것이 있다면 보여지는 현상의 세계를 전부로 놓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무의식의 세계를 들춰냄으로써 현상의 세계를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으로 치료에서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칠 수 있냐하면 이런 문제에 목도하게 되요.

자 이 쪽으로 어떻게 들어 갈 것이냐.. 원인분석으로 어떻게 들어 갈 것이냐.. 이 관계에 있어서 위에 현상이 있고 아래에 본질이 있고 이 본질은 무의식이며 현상은 의식이라 할 때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이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

랍은 누구냐? 그렇죠? 이게 하나의 문제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의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고 무의식이 치료가 되어야만 의식도 치료가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프로이트의 라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요? 과거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청년 시절은 어땠는지 유년시절은 어땠는지 지난 과거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용도 마찬가지로 라깁도 마찬가지로 또 이전에 프로이트도 마찬가지로 모두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현실의 이런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원인분석을 하고 거기다가 병의 원인을 부여하게 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럴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할 입장이에요.

▲지평융합

가다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어린 시절 유년시절의 어떤 시점까지 내려가야 하는가? 어디까지 내려 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물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람 분석해낼 수 있는 사람.. 지금까지는 의사가 환자의 유년시절로 내려가 분석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것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흡사하게 근처까진 갈 수 있지만 사람이 정말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고 상처를 입었고 자기가 그 때 가졌던 경험까지 제 삼자인 의사가 들어갈 수 있는가? 물론 전문가들은 통계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실증적 통계치에 의존하는 또 다른 이론화일 뿐이죠.

가다머가 볼 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해석할 때.. 자 해석이 여기가 현실 시점이에요. 현실시점이면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본래의 원 실재로 컴백할 것이냐?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이것을 물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 과거로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다머의 지평융합(Horizont ver Schmelzung)이라는 걸 배웠죠?

지평융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만나지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은 과거로 내려가 거기서 무엇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과 더불어 하나가 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로 내려가 과거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현실과 관계지어진 과거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과거라는 건 온전하고 완전한 현실과 떨어져서 분리되어진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은 참 말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이해되세요?

▲지평융합과 치료

그래서 위의 이론에서는 과거를 현재의 병의 원인으로 놓을 수 있지만 가다머의 입장에서 과거는 만나져지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며 현재에서 과거로 내려가 만날 수 있는 것도 없으며 현실의 입장에서 보는 과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나의 과거에 대한 추이해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단지 내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병인 거예요.

위에서는 병이 어디 있어요? 여기(과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병이 났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는 지금 내가 과거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아프기 때문에 과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도 달리 말하게 되지만 치료도 달라져요. 위에서는 과거를 고치면 현재의 병도 저절로 낫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의 치료는 뭐냐 하면 항상 과거로 들어가서 분석해서 그것을 시정하고 과거의 경험에 대한 치료를 통해 병이 나았다고 하지만 가다머에 있어서 치료란 지금의 나의 이해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지금 내가 아픈 거거든요. 과거가 원인이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를 보는 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의 나의 이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에서 과거를 치료하면 건강하게 되지만 가다머에 있어서 항상 나사처럼 돌아가고 지평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 지금 내가 있는 거죠. 이것은 떼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원인이기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과 더불어 지금이라는 것이 항상 간주관성이라는 것으로 어느 하나가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로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선 그렇게 되어 지죠. 어느 하나가 원인이 되어져서 그 결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만 아래는 원인과 결과가 분리되어지지 않는 나의 모든 것이 지금의 나의 이해의 상황 속에서 따로 지평융합 되어 지면서 두 지평이 만나 하나로 융합되어지면서 그것이 나의 이해 속에서 나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로 있는 그 자체가 문제이죠. 그래서 원인을 제거해서 그 결과로 병이 낫는다는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은 그것과 더불어 계속해서 나는 고통도 행복도 기쁨도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하면서 가는 하나의 여정이 되어 지는 거

죠.

사실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의 이론이 가능하냐? 아래의 이론이 가능하냐? 우리들이 이론상으로는 위의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 같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실 사실성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고쳤다고 완전히 나아지는 원인결과관계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아래 이론은 부분적으로 융합해가면서 계속 새로운 병도 생기면서 나아가면서 또 나아도 아파가면서 나아가면서 가는 거고 위의 이론은 유토피아고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런 지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다머는 치료나 병의 원인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위의 입장이 아니라 아래의 입장에서 다시 논해질 수 있어야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죠?

물론 이 입장에서는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의료기술이 발달되어가는 부분이 있고 진단과학 같은 것들은 이런 부분에서 힘을 얻고 있고 그런데 요새 많은 반성을 하면서 그것과 더불어 사실 사회가 구조주의 입장으로 바뀌면서 사회와 문화와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개인이 무중력 상태 속에서 개인만 띄어 떨어져 있는 인간 이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와 더불어 구조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부분까지는 거의 수궁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 이것은 후기 구조주의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고 새로운 포스트구조주의라고 하고 이름을 다르게 붙일 수 있겠죠. 이것은 구조주의가 갖고 있는 모순을 이것과 같이 극복해내고자 하는 현대철학의 최후방.. 요즘 현대철학들이 많이 지향하고 있는 태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자연에 대한 이해가 시대마다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도 만들어지고 종교도 만들어지고 의학도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자연에 대한 세 가지 태도 1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대한 철학이 어떻게 설명되느냐에 따라 입장도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우리들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자연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를 갖게 되지요. 자연은 뭐냐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놓고 보고 자연 그자체가 자연으로부터 자연이 분해와 화합을 충돌되어지면서 하나의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이 나중에 정신세계로 나왔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입장은 자연은 정신을 가지지 못한 죽어있는 하나의 물적 존재 사물적 존재이므로 그것은 원인이 되어 질 수 없고 우리의 자원이 되어 물적 대상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의 자연은 앞서 언급한 정신적 존재나 물질 대상이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고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이고 살아있는 생명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말을 한다는 입장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인간 그 자체를 어디에다 넣을 건가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진다는 거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자연보다 위대하다고 본다면 근대에서부터 봤던 태도를 지향하는 거죠. 자연을 인간의 대상으로 본다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성 페미니즘을 보게 되면 자연과 여성을 일치시켜서 수동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의학적인 견지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때의 자연은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되지요. 대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이 정복해야 할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우리들 인간을 위한 도구, 자원이 되어 지죠. 그런데 그 인간이 이것의 대상과 정복과 자원의 하나의 주인으로서 작동되어지는데 작동되어진 이 주인은 자기의 몸을 무엇의 대상이냐 하면 영혼에 대한 대상이죠. 여기서 인간 자체가 분리가 되어져요. 인간이 영혼 대 육체로 분리가 되어져요.

그 다음 정복해야 될 몸과 자연을 대상으로 할 때 인간이 주인이다 라는 것은 육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육체는 자연이 되어져 버리고 그 자연을 지시하는 주체로서의 대상은 영혼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때 영혼이란 것은 고대 시대에서 정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의학은 정신하고는 관계하지 않고 오로지 육체하고만 관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신 부분을 놓쳐 버리고 오로지 육체만 가지고 나왔다 안 나왔다 또는 치료의 대상으로 그 병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그 다음에 이걸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물체라든지 다른 무엇들을 하나의 자원화 시켜서 도구화시켜서 육체의 건전함, 보이는 건강함으로 꾸려나 가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몸이라는 것으로 등장해서 몸과 몸이라는 것이 육체가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몸이 어떻게 돼야하냐 하면 여기에 미적 측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도덕적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아름다움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고 미라는 것은 대상이라는 측면이 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비율이 맞고 눈이 크면 무슨 병 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느 쪽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딱 보면 의사들이 노련하면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은 허리춤이 척추 측만증이 있겠다. 그래서 삶의 태도가 어떻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소의 자세가 안 좋으니까 왼쪽 콩팥이 무리가 가겠다.콩팥이 안 좋아서 저 사람은 등등 이런 식으로 몸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연에 대한 세가지 태도 2

근데 그 다음 세 번째로 가게 되면 몸을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대체 장기를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옮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황우석씨가 신청했는데 부결됐다고 하죠? 얼마든지 복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만 하면 가능한 일이죠. 그런 사유를 근본으로 갖고 출발하는 의학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세 번째 개념은 또 다른 거죠. 백혈병 걸린 환자들을 바라보면 어떤 백혈병은 고칠 수 있고 어떤 백혈병은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백혈병에 걸리면 거기다가 줄기세포. 아직 줄기세포의 치료까지는 안 갔지만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을 투입하죠.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하고 골수 이식도 말하자면 맞고 안 맞고 검사를 다 하잖아요. 그 하는 이유가 그것도 아직은 줄기세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발달을 통해서 줄기세포의 연구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여기서도 보면 유전인자가 맞고 안 맞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부작용을. 그런 검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형제 설사 쌍둥이고 똑같은 병에 걸려서 똑같은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잘 적응하고 한사람은 부작용이 일어났다. 그런 경우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보고가 된 예가 있는데, 그럼 왜 한 사람은 살고 한사람은 부작용이 일어나서 죽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부합되고 부적합한 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쌍둥이 자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연을 보는 관점에서 설명하고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로 어떤 사람이 아파서 누군가 골수를 줘서 처음에는 적응이 잘 됐는데 나중에 다시 아파서 똑같은 사람이 이식을 해 주었는데 이때는 안됐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 자연을 정신세계로 해석할 때와 자연을 단순히 대상으로 간주할 때 마지막으로 유기체적 자연으로 볼 때의 이 케이스는 각각 어떻게 해석 할 수 있을까요? 일변으로 하면 해석이 안 되죠. 똑같은 원인과 결과니까 똑같은 원인과 결과가 나와야 되요. 이번으로 하게 되면 우리들이 볼 때는 똑같다고 보지만 똑같지 않은 무언가가 우리들이 발견해내지 못한 무언가가 이 속에서 더불어 반응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기 치료에는 이것만이 아닌 다른 부분 다른 것들이 같이 함께 더불어 작동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의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이것은 연구사례다 라고 발표를 하지만 가다머식으로 하면 치료란 원인과 결과로서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한운동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같은 반응이 주어지는 관계 속에서도 다르게 되어 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같은 경우로 주고받아도 시간과 더불어 다른 말로 하면 역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때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같은 결과로 도출시킬 수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